

23년 11월
퇴직연금 레터

사랑하고 존경하는 파트너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한투자, 증시각도기 팀에서 인사 올립니다.

저희가 ISA, IRP 레터를 쓰지도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6월 이후 처음으로 글로 인사 드리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만에 레터를 쓰게 된 주요 이유는,
포트폴리오 변경과 관련된 이슈가 추가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퇴직연금을 운영할 때 생각하는 원칙은,

1. 적절한 수준의 **이자 및 배당소득** 확보
2. 장기적으로 **편안하고 안정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투자
3. 인기 있는 영역 보다는 **꾸준한 캐쉬카우**가 있는 영역
4. 적정가격 대비 심각한 수준의 **저평가**

등등을 기준으로 삼아 선택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1-2년이 아니라 내 노후를 책임져 줄 상품이기 때문에,
10년 이상의 시계열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하기에 기존 랩어카운트 등의 운용보다 보다 더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운용을 추구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는 채권에 기회가 굉장히 많았고,
올 초부터 채권 금리가 급등했고 예금 금리도 급등을 했기에
그쪽으로 최대한의 자원을 투자하기를 제안 드렸습니다.

그때보다 금리가 떨어졌지만, 여전히 채권과 금리형 상품은
투자에 유효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지난번 제안 포트폴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대한 금리가 높은 예금형 상품**(증권금융예금 등. 기간도 1~3년짜리) 30%
2. **반도체ETF** : 20~30%
3. **은행 ETF** : 10~30%
4. **증권 ETF** : 10~30%

23년 11월
퇴직연금 레터

채권/예금형 상품의 경우 현재의 포트폴리오에서 크게 변경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내년까지는 아마도 현재의 포트를 유지하게 될 것이고, 예금 상품은 만기까지 현재의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연초부터 투자 제안에 들어온 **반도체**는 지난 6월달 비중 확대를 제안 드렸습니다. 기존 10~20% 포트폴리오에서 20~30%까지의 확대를 추천드렸었지요.

9월~10월 조정이 좀 있었으나, 다시금 반등하기 시작하고 있고, 여전히 최선호 포트폴리오로 반도체를 생각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우위의 수익률을 우리에게 선사해줄 포트폴리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별 주식단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삼성전자의 내년도 본격적인 업황 회복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반도체 ETF의 성적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기대 중입니다.

연초 반짝하던 **은행**은 꽤 긴 시간의 침묵 이후 서서히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배당이 이루어졌고, 내년도 4월도 배당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꾸준한 배당주로 보유를 해도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점에 추가를 하신 분들 중 공격적인 분들은 일부를 반도체 편입으로 비중 조절은 가능하실 듯하고, 무난한 흐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현재의 은행 ETF는 큰 문제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증권 ETF는 정말 부진한 듯 보이지만 의외로 연초가격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흐름대비 부진했지만 개별 증권업종의 부진과 비교하면 so so한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년도 일부 브릿지 관련 문제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총선 이전에 가격 상승이 이루어진다면, 일부 수익실현하는 것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총선 전후로, 브릿지 관련된 **부동산 부채** 문제가 사회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문제가 은행이 흔들리는 수준인 시스템 리스크까지 진도가 나갈 것으로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금융이란 것이 심리적 전염 속도가 빨라 장담을 할 수는 없으나, 한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높고 위기 발생 방어에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기상황으로 전이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 중입니다.

이러한 저희의 원칙과 전망에 따라 이번엔 포트폴리오에 대한 변경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진 않을 예정이고, 개인적인 선호에 따라 현재 상황에서의 비중을 정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23년 11월
퇴직연금 레터

현재시점에서 저희가 제안 드리는 포트폴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대한 금리가 높은 예금형 상품(증권금융예금 등. 기간도 1~3년짜리) 30%
2. 반도체ETF : 20~35%
3. 은행 ETF : 10~30%
4. 증권 ETF : 10~30%

반도체 ETF의 경우 이미 소폭 상승이 반영되었지만
삼성전자쪽에서 일부 기회는 내년에 열릴 것이라고 보여지고,
전공정 쪽에서도 약간의 기대를 하며 무난한 선택이라고 여겨지는 소폭의 비중 조절을
진행하였습니다.

어려웠던 22년을 넘어, 기대를 안고 23년을 진행하였습니다.
22년의 손실을 만회하고, 연초 대비 일정 수준의 수익을 거두긴 했지만,
22년도의 상처를 완벽하게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어서 아쉬움이 많은 23년 11월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꾸준히 길을 가다보면,
때가 되어 수익률이 회복되고 쌓이는 경험은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을 것입니다.

함께 해 주시는 모든 파트너, 고객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인사를 올립니다.
저희도 꾸준히 갈고 닦아 여러분의 더 좋은 파트너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투자
김상준

매트릭스 투자자문 대표
각도기 광상준 올림.